지역 메아리

고창군, 수능 수험생 대상 흡연 · 음주예방 캠페인 전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공허함과 성적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흡연과 무분별한 음주 등으로 탈선에 노출되기 쉬운 수험생을 대상으로 흡연과 음주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중1학년~고3학년 대상) 현재흡연율은 전북 8.7%로 전국(7.8%)비교 0.9%가 높았고 주 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율은 30.1%로 조사가 되었으며, 음주율은 전북 18.5%로 전국(16.7%)비교 1.6%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고창군보건소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심리적 해방감으로 인한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등 일탈행위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창경찰서와 함께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함께 무분별한 흡연과 음주의 유해성이 담긴 홍보용 교육 자료를 배부하기도 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동계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

정읍시가 동계 원어민 영어캠프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시는 "학생들의 영어 학습 성취감과 자립심을 높이고, 글로벌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겨울방학기간 영어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어캠프는 내년 1월 2일부터 1월 19일까지 3주 간 합숙으로 전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된다.

희망자는 이달 30일까지 시청 교육체육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suvina310@korea.kr) 또는 팩스(539-6509)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용은 120만원으로 8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은 40만원이다.

단, 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합격자는 내달 정읍시와 전주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및 교육체육과 교육지원팀(☎063-539-5532, 553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감시체계 운영 시민 건강 증진 기여

정읍시보건소, 기후변화대응 건강분야 최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정읍시보건소가 2017년도 국가기후변화대응 건강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8일 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병본부)에서 열린 '2017년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교육'에서 보건소가 이같은 영예를 안았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와 보건소, 의료기관의 감시체계 운영 담당자 800여명이 참석했다.

질병본부는 17개 시·도와 235개 보건소, 전국 530여개 응급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기후 변화대응 감시체계 전산시스템에 환자 발생 등을 신고, 보고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건강 피해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다.

관련해 이번 평가는 한랭·온열질환 감시체계 신고 결과를 기준으로 실시됐다.

시 보건소의 수상은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T/F팀을 구성, 감염병 위험소통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감시체계 운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결실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시 보건소는 폭염질환자 감시T/F팀을 구성해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도우미를 운영했다.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무덤위 쉼터를 지정, 운영하고 폭염 대응 홍보활동도 강화했다.

특히 감염병 위험 소통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감시체계 운영으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역 내 병의원 22개소와 보건교사 등을 모두 42개소를 질병정보모니터로 지정, 폭염과 한랭 예방 관리 요령 등을 신속하게 알리고 환자 발견 시 발생 현황을 통보토록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건강정보와 예방 수칙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최우수 기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하는 '2017년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8일 시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최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과 상금 150만원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전국 1000여 개 공공도서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된 평가 결과이다.

정읍시 대표 공공도서관인 시립중앙도서관은 지난 1990년 개관됐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이번 평가에서 ▲3개 공공도서관과 14개 작은도서관을 통합한 도서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 운영 ▲도서관리와 이용자 서비스 협력망 구축 및 상호대차 운영을 통한 정보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더불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과 지역행사 참여 지원을 통한 생활 밀착형 독서환경 조성 ▲지식 취약계층 기관과의 협력 사업 운영 등의 협력 업무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 간 지식정보 격차와 문화 불균형 해소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 공공도서관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에 주력, 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공공도서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군민들의 건강증진 · 질병예방 앞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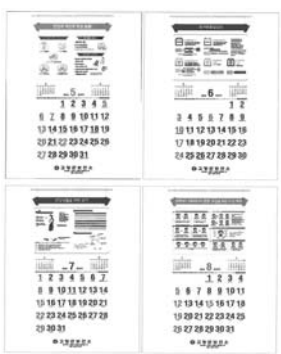
고창군보건소, '2018 건강달력' 제작 배부

고창군 보건소가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건강정보와 보건사업 내용들이 수록 된 '2018 건강달력'을 제작해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보건진료소, 경로당 등에 1600부를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강달력'은 군민 누구나 달력을 보고 쉽게 건강생활 실천할 수 있도록 월별로 영역별 건강정보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해 스스로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됐다.

건강달력은 주요 관공서, 유관기관, 지역 내 579개소 경로당 등 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배부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상식을 접하고 느끼며 실천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달력에는 △1월 간접흡연의 영향 바로알기 △2월 혈관 나이를 알면 건강이 보인다 △3월 당뇨병 △4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음식 △5월 건강의 적신호 뱃살 탈출! △6월 국가 무료 암 검진 △7월 건강생활을 위한 걷기! △8월 0세에서 100세까지 튼튼 구강을 위한 구강체조 △9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0월 결핵 △11월 술을 줄여야 하는 이유 △12월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로 구성되어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역방위 작전 결산 평가 충무계획 보완대책 마련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 4분기 통합방위회의 개최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의장 김생기 시장)는 28일 올해 4분기 통합방위회의를 가졌다.

'완벽한 충무계획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는 통합방위위원과 군 지휘관, 예비군중대장, 충무계획 담당부서장, 읍면동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올해 지역방위 작전과 훈련 지원, 통합방위 역량에 대한 결산 평가와 함께 통합방위작전 성과 등을 분석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2018년도 충무계획 수립 시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등에 따른 현대전의 특성에 대응하는 전략을 반영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전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전시 지역방위작전 비용 지원 방안 ▲적의 미사일과 화생방 공격 등 비대칭 전력 도발에 따른 생, 화학, 방사능 오염쓰레기 처리 대책 ▲전시 시설복구사업 계획 관련 한 지역 내 용역업체 지정 등을 논의했다.

또 ▲전시 시설 복구와 사상자 후송 등에 필요한 민간 보유 인력?장비 확보 대책 ▲전시 군부대의 급식과 수송 차량 등 민간물자 조달업체 등의 동원업체 지정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김생기 의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는 안보와 관한한 절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만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회는 회의에 앞서 국군 장병과 지역방위작전과 훈련, 을지연습, 민방공 대피 훈련 등 각종 훈련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기관·단체 조직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소방서-전북소방안전협회

백산면 대산마을 · 난산마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부안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전북 소방안전협회와 함께 백산면 대산마을과 난산마을의 60가구 단독주택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했다.

이번에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겨울철 및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소방안전협회 전북지부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구매 부안소방서 직원들이 직접 설치에 나서며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및 관리요령 교육까지 하여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일반주택에 2017년 2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며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연내 단독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 보급률 40% 이상을 추진하고 있다.

부안소방서 강동일 서장은 "주택화재 사망자가 전체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그 위험도가 높다. 오늘 백산면 마을지역에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아주 소중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인=이옥수기자

부안군, 의료급여제도 · 이용 방법 교육

부안군은 부안읍 주민복지센터는 28일 2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와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급여제도 설명 및 올바른 의료이용방법 교육을 했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쉽고 흥미롭게 의료급여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제작된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신규수급자가 의료급여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의료급여 진료비 감소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 자의 병원, 약국 등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 신청, 선택 병의원 제도, 중복투약관리 제도 등 다양한 의료급여 제도 이용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부안=이옥수기자